



보도 일시	2022. 9. 1.(목) 14:00	배포 일시	2022. 9. 1.(목) 14:00
담당 부서	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	책임자	과 장 김충기 (064-727-0367)
		담당자	전문관 한경훈 (064-727-0367)

9.2(금)~4(일) 매우 강하고 많은 비, 강풍·풍랑·너울 주의

주요 내용

- 제11호 태풍 ‘힌남노1)’ 전면(제주도부근)에서 강한 비구름대 발달
 - 돌풍과 천둥·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
 - 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, 해안가 너울·월파 주의



[9월 2일 아침 기압계 모식도]

1) 제11호 태풍 힌남노(HINNAMNOR)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국립보호구역의 이름임.

- 제주지방기상청(청장 전재목)은 9.2(금) ~ 4(일)에 제주도 부근에서 발달하는 강한 비구름대 영향으로 강풍과 함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, 해상에도 매우 높은 물결과 너울이 예상된다며 상세한 기상 전망을 발표하였다.

[태풍 현황 및 전망]

- (현황) 제11호 태풍 '힌남노'는 1일(목) 09시 현재, 초강력 태풍으로 타이완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5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의 속도로 남진하고 있으며,
 - (예상 진로) 2일(금) 09시에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490km 부근 해상에서 점차 느리게 북상하여, 6일(화) 09시에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서귀포 동북동쪽 약 180km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 - (변동성) 5일(월) 이후의 태풍진로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,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- (※ 태풍에 의한 기상전망 설명자료는 9.4(일) 발표 예정)

[기상 전망]

- (강수 전망) 비는 오늘(1일)부터 산지와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, 당분간 강수가 이어지면서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,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할 것을 당부하였다.
- 특히, 제11호 태풍의 남쪽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여, 2일(금)~3일(토)에는 한라산 및 남부, 동부지역 중심으로 최고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.

-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·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, 시간당 30~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,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.

〈 예상 강수량(1일~3일) 〉

제주도 : 100~200mm (많은 곳 300mm 이상)

- 개울가, 하천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리거나 고립될 수 있으며,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 및 야영 자제
 - 저지대에서는 고립될 수 있으며, 침수지역 감전 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
 - 하수도와 우수관, 배수구, 맨홀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 및 접근 자제
 - 돌풍과 천둥·번개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
- (강풍 전망) 오늘(1일)부터 제주도는 바람이 30~45km/h(9~13m/s), 순간최대풍속 55km/h(15m/s)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, 특히 내일(2일) 새벽부터는 바람이 35~60km/h(10~16m/s)로 더욱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며,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- (풍랑 전망) 현재 제주도남쪽바깥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, 오늘(1일)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나머지 해상에도 순차적으로 풍랑특보가 확대되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고 밝혔다.
- 오늘(1일)은 제주도남쪽안쪽면바다와 제주도앞바다(북부·서부 제외), 내일(2일)은 북부·서부앞바다와 남해서부서쪽면바다에도 바람이 30~60km/h(9~16m/s)로 매우 강하게 불고, 물결이 1.5~4.0m로 매우 높게 일겠고, 모레(3일)는 남쪽면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5.0m까지

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으니,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
- 또한, 해상에도 돌풍과 함께 천둥·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,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갯바위,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다며 해안 저지대 침수와 시설물 관리 등 해안가 및 해상 활동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